



테러 단상 (斷想)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대리〉

중3때 일이다.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요즘의 폭력 서클이랄 수 있는 조직에 가입한 녀석이 있었다. 처음에는 반을 돌며 제일 말썽 많고 텃세부리는 애들을 멋대로 골라내어 두들겨 패곤 했다. 물론 반항세력제압이 목적이었겠지만 언제나 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좀 지난 후에는 대개가 그렇듯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안 갚기가 일쑤였다. 반 학생들은 못마땅했지만 후환이 두려워 모두들 쉬쉬하고 있었다. 고입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막바지 점점이 한창이던 어느 날, 늘 혼자만 다니던 조그마한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랑 깡패 녀석이랑 시비가 붙었다. 아마 작은 녀석이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보챘던 모양이다.

모두가 예상한대로 깡패 녀석은 건방지다며 작은 녀석에게 뺨따구를 올려붙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작은 녀석은 큰 녀석을 교실 앞으로 불러 같이 걸어 나가더니 갑자기 뒤돌아서며 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녀석의 눈에 주먹을 날렸다. ' 짹'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녀석은 바닥에 고꾸라졌고 모든 반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깡패 녀석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다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작은 테러였던 셈이다. 일주일간 깡패 녀석은 눈에 생긴 시퍼런 멍자국을 감추느라 안대를 하고 다녔다.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 금세 소문이 짹 퍼졌다.

한 보름이 지났다. 그 작은 녀석이 갑자기 결석을 했다. 넘어져서 다쳤단다. 다음날 녀석은 김스를 한채 나타났다. 반 아이들은 누구에게 듣지도 않았지만 깡패 녀석에게 보복 당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진짜 깡패는

요즘 미테러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

세계 경찰이라 자칭하는 미국. 구소련 붕괴 이후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은 걸프전, 유고내전에 이은 코소보사태 등 여러 크고 작은 국가간 분쟁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계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개입했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강대국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의 국가들에게 깡패국가(Rogue State)라고 낙인찍어 놓았다. 물론 이라크 등이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 측이 행사하는 폭력은 면죄부가 부여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멋대로 강대국으로 낙인찍는 국가 또한 어찌 보면 강대국가가 아닌가. 더욱이 미국은 자신들이 분류한 강대국가인 이란 등에게 아프간을 공격하기 위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편에 서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며,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가로서는 어디를 택할지는 자못 분명해진다.

미디어를 장악한 미국은 잇을만하면 세계무역센터 빌딩의 항공기 충돌 장면과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빌딩의 잔해 사이로 절규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방영함으로써 전 세계 국민들에게 당당히 전쟁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며 아프간의 죽어가는 민간인들의 모습도 외신을 통해 간간히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탄저병으로 미국민들의 공포와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수뇌부에서 조작 정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이 설자리는 점점 좁게만 느껴진다.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를 회복해야

그 작은 녀석을 우연히 다시 만난 건 군대가기전 친구들끼리 모여 있었던 어느 술집이었다.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에 그저 그런 근황을 물어보다가 중학시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녀석에게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친한 친구가 없이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원래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소문이 따라다녀 친구들과 웬지 친해질 만 하면 슬금슬금 피하더라. 원래 내성적이지 않은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그랬을 거라 짐작은 하면서도 그 테러사건이 그 녀석 이미지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끼쳤으리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안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 녀석은 한 순간 승리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패배자였던 게 아니었을까. 따지고 보면 모든 폭력사건에는 패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다.

언제나 그렇듯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결국 역사속의 승자는 시간이 흐르면 판가름 날 것이다. 현재 승자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패자일 수도 있고, 지금은 패자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승자일 수도 있다. 예일 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가장 큰 실책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여 그것을 '과도하게 행사(over-stretch)' 하려는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오늘날 절제없는 힘의 과용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훗날 미국이 자신들이 행사한 폭력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오기전, 지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해본다. ☹